

## 2022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 가 · 정 · 예 · 배

## 가정예배 지침

-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와 추모예배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리되 함께 만날 수 없는 부

모와 형제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다면 더욱 뜻깊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배 중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연을 나눈다면 보다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 예배순서

|                 |                                  |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        | 하나님의 크신 사랑(새15, 통55).....        | 다같이    |
| 기도 .....        | 가족 중에서                           |        |
| 성경봉독 .....      | 여호수아 1:1~9.....                  | 가족 중에서 |
| 설교 .....        |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설교자    |
| 축복의 마음 나누기..... |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 다같이    |
| 중보기도 .....      |                                  | 다같이    |
| 찬송 .....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경배와 찬양 493).....   | 다같이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들어가는 말

세상은 아직 재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 새 역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자유를 얻게 하였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희망이 꺼져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세 가지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야 할 땅’: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2절).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가

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야 할 지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하며, 둘째,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가족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서로 자라고 성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져야 할 마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지만 결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2절),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5절). 그들의 전차와 싸우고, 성벽을 넘고, 그들의 전략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6, 7, 9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6, 9절).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살며,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요일 5:5).

‘지켜 행해야 할 법’: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6절), 하

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7절).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전쟁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인 것입니다(8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 나가는 말

하나님은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얻도록 세 가지의 마음을 부여주셨습니다. 첫째,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약속의 땅, 곧 사명과 비전의 땅입니다. 둘째,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실력과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셋째, 지켜 행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단지 성공과 성취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8절). 결국 가야 할 땅으로써의 ‘비전’과 가져야 할 마음으로써의 ‘믿음’과 지켜야 할 법으로써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2022년을 새 시대로 살며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추 · 모 · 예 · 배

##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                |                                          |        |
|----------------|------------------------------------------|--------|
| 묵상 .....       | 시편 145:1~4.....                          | 다같이    |
| 찬송 .....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새484, 통533).....           | 다같이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다같이    |
| 기도 .....       | 가족 중에서                                   |        |
| 성경봉독 .....     | 마태복음 16:25~28.....                       | 가족 중에서 |
| 설교 .....       | 영원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 설교자    |
| 찬송 .....       | 나의 생명 되신 주(새380, 통424).....              | 다같이    |
| 추모하는 이야기 ..... |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 다같이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영원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 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

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25~26절).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목

숨이야말로 오직 주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에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목숨이 소중하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27절).

주님의 처음 오심은 베들레헴의 구유, 비전함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다시 오심은 전능하신 심판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다시 오심이 결코 막연한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미래는 벌써 현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요 3:18).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며, 아직 미약할지라도 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이 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28절).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들던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주의 다시 오심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지만, 그 실상은 성도의 믿음 안에서 이미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행복과 기쁨은 밥을 먹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짓는 냄새가 문 앞까지 흘러가는 순간에도 시작된 것이며, 동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애들아! 들어와 밥 먹자”라는 어머니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그 행복과 안식은 시작된 것입니다.

## 나가는 말

오늘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인을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